

# 개성적인 책날개로 독자와의 거리 좁힌다

독특한 약력사항, 저자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 시도해



책날개가 바뀌고 있다. 앞날개에 지은이의 간략한 약력이나 책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글이 들어가고 뒷날개에는 시리즈 목록이나 자사의 책광고를 실는 것이 보통 책날개의 형식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책들의 책날개에서는 지은이의 학문적 이력을 자세하게 밝혀주거나 지은이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는 등 다양한 형식을 시도하는 것이 눈에 띈다.

## 달힌 책날개에서 열린 책날개로 변화해

책날개는 독자가 본문으로 진입하기 위한 관문이다. 독자의 시선은 책제목→표지→책날개→차례→머리말→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책날개는 이 시선 안에서 따로 분리된 표지 부분과 본문 부분을 일관성 있는 주제로 묶어준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개념은 출판에서 많이 간과돼왔다. 책날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간략한 책과 지은이에 대한 정보뿐이었다. 특히 지은이 약력의 경우 한 지은이의 다른 책인데도 저서만 몇 권 보태졌을 뿐, 예전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실어 천편일률적인 느낌을 주기 일쑤였다.

이런 분리되고 달힌 책날개 형식이 조금씩 열린 태도를 지향하게 된 것은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다. 특히 문학에서 이런 시도가 두드러졌다. 문학과지성사의 <문지시인선>의 책날개에는 시인의 간단한 약력과 시집에 대한 간단한 총평이 곁들여져 있는데, 지금도 <문지시인선>의 책날개는 이런 형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총평은 책 뒤에 붙은 시집 해설과는 다른 편집자의 시각이 드러나 있어, 시집에 대한 다양하고 열린 시각으로 독자를 이끈다.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활동했던 작가들의 약력은 또한 천편일률적인 약력에서 탈피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작가 김영하인데, 그는 책마다 약력이 다 다르다. 지난해에 나온 산문집 <굴비 낚시>(마음산책)에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마음산책에서 펴내는 산문집 책날개에는 그 자체가 한 편의 에세이라고 할 만큼 지은이의 삶의 내력이 세세하게 드러나 있다. 마음산책 정은숙 대표는 “지은이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터넷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알 수 있다”며 “그 책의 성격에 맞는 지은이들의 독특한 약력이 필요하다. 책날개가 이제는 그 책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책의 완성도 높이는 데 기여해

문학에 비해 인문서의 경우는 최근에야 책날개에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집문당이나 일지사, 일조각 등에서 펴낸 양장본 학술서처럼 책날개에 아무 것도 게재되지 않거나 간략한 약력 소개가 대부분이었다. 까치글방의 책들처럼 앞·뒷날개에 걸쳐 소개되는 자세한 지은이 약력이나 책소개가 그나마 독특한 시도였는데, 최근에는 그 형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책세상문고·우리시대> 시리즈의 책날개에는 자세한 삶의 이력과 함께 지은이의 학문적 내력과 관심분야, 학문적 갈등까지 친절하게 밝혀져 있다. 책세상 김미진 차장은 “학력이나 저서 위주로 나열하는 방식의 약력은 이제 독자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이런 자세하고 친절한 약력이 인문학을 대중들과 친

밀하게 만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그러나 “너무 가볍고 장난스런 약력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예 책날개를 지은이와의 인터뷰 형식으로 꾸민 경우도 있다.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전2권)>(정연식, 청년사)는 앞날개에 지은이의 약력을 소개하고 뒷날개에 ‘지은이와의 짧은 대담’을 실었다. 지은이가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 2권에서 다룰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지은이가 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어 책의 성격과 지은이의 관심분야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서양과 동양이 127일간 e-mail을 주고받다>(김용석·이승환, 휴머니스트)의 책날개에 드러나는 두 대담자들의 모습은 입체적이다. 앞날개와 뒷날개에 각각 두 사람의 친필을 배경으로 깔고 사진도 서로 다른 사진을 세컷씩 실었다. 사진 옆에는 대담하게 된 동기를 짧게 인용했고, 약력에는 대담자들의 학문적 성격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또한 앞뒤 책날개를 펼치면 지은이들의 일상을 담은 다양한 사진들이 화보로 꾸며져 있기도 하다.

책날개에 대한 다양한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휴머니스트 김학원 대표는 “책날개에 대해 세심하게 신경쓰는 것은 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독자와 지은이 사이의 거리를 좁혀 독자와 한결 친밀하게 호흡하는 일이다. 지은이와 좀더 가까이 있는 편집자들은 본문 원고를 통해 저자를 보여줄 뿐 아니라 지은이의 생각, 문화적 특성 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책날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장근 기자